

“돌의 성품 다 버려야 진짜 벼루”

산문박의 禪

紫石벼루제조 신명식 씨

도도히 흐르는 영춘강과 잔길 병풍으로 버티고 선 암벽들이 절경을 이룬 마을.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를 찾은 사람들은 우선 마을을 에워싼 경치에 감복을 한다. 그 다음으로 감탄스러운 것이 이 마을에서만 나는 자석(紫石) 벼루다. 흔히들 벼루하면 오석벼루를 연상하지만 붉은 빛을 내비치며 감직한 성품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자석 벼루다.

20살부터 붉은돌 인연

“시절인연에 따라야죠. 차라리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세상사 아닙니까. 그 편한 마음에서 내 일이 일답게 되더라고요.”
명맥이 끊어졌던 자석벼루를 다시 세상에 드러낸 신명식(46·영춘벼루공예 대표)씨. 의외로 그는 시절타령을 먼저했다. 가만히 듣고보면 푸념이 아니라 세상사에 도가 트는 소식 같기도

때문에 언제나 지금의 상황을 토대로 마음속의 문양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넓고 큰 심안이 그럴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환갑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며 새로운 문양과 기법을 개발해야죠. 환갑이 되면 멋지게 전시회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일에 일생을 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환갑 때 가지라지만 그건 바램이고 누군가 나의 칼을 물려 받는 날까지 이 일을 놓을 수는 없겠지요. 사실 돌을 벼루로 만든다는 것이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어려운 경지라 믿어야 해요. 그저 돌을 다듬어 이름만 벼루라고 붙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벼루가 된 돌은 벼루일 뿐이지 돌이었을 때의 성품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무작정 단양을 찾았었다. 26년 전의 일이다. 충남 보령이 고향인 신



“돌을 달래며 칼질하다 보면 마음조차 잊어버려요” 돈욕심 버리고 ‘명품만들자’ 생각하니 심미안 열려

하지만. 신씨는 요즘 남에게 팔 물건 만드는 일보다 보여만 팔 물건 만드는 일이 더 신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장사라면 그동안 할만큼 했고 시절인연도 불황의 연속이라 ‘이제 내 작품을 만들자’고 마음 먹은 것이다. 25년을 해 온 일도 마음을 고쳐 먹으니 새로웠다. 붉은 돌에 살아 꿈틀대는 용을 새겨 넣으며 명품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는 돈 벌이에 바빠있는 기능인이었다가 이제사 예술하는 사람으로 자리 다잡아 앉았지만 누가 봐도 늦은 나이는 아니다.

조각칼이 닿기전에 문양을 먼저 봐야 하는 심안(心眼)은 쉽게 떠지는 것이 아니다. 세월을 이기는 인내가 놓여져 자신도 모르게 다져진 장인이 아니 고선 그런 눈을 갖기 힘든 것이다. 칼질을 하며 돌을 달래야 하고 그런 가운데 정교한 문양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게 돌일이다. 그래서 일단 일에 들면 눈은 눈이 아니고 마음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밀그림 대로 칼이 먹어 주지도 않고 돌이 깎여 주지도 않

씨는 부친이 농사 틀림이 만드는 오석 벼루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만 해도 제법 짙은 부업이었던 것이다. 돌다듬는 일이 싫지 않았던 그는 어느날 단양방으로 가서서 붉은 돌을 떼어와 벼루를 만들었는데 최고로 팔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공금중에 견딜 수 없었다. ‘그 붉은 돌이 어떤 것이길래.’ 스물의 나이에 그를 공금중에만 사로잡아두지 않았다.

“무작정 단양으로 왔어요.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자석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향산리 가재골에서 옛 광산터를 찾았어요. 30여 미터를 파내려 가니 자석이 나오더군요. 양수기로 물을 퍼내며 자석을 떼어 보려고 갔는데 아버님이 ‘바로 이거다’ 하시더군요. 그후 아예 영춘으로 집을 옮겨와 오늘까지 벼루 만드는 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자석을 발견하고 작업에 들어갔을 때 신씨는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돌의 성질을 잘 모르고 강도가 높아

연장이 잘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씨는 아이를 달래듯 자석과 친해지기 위해 무진 애를 썼고 연장도 더 단단한 것으로 특별히 주문해 쓰면서 조금씩 자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한다는 것은 화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많은 시간의 노심초사로 터득했다는게 신씨의 고백이다.

“맥이 후학 없어요”

“지금도 마음이 실란하면 연장을 들지 않습니다. 돌과의 인심이 되지 않으면 작품이 되지 않거든요.”

자석은 그 강도 때문에 스스로 금이 가 있다. 그래서 큰 원석은 일기가 어렵다. 가공하기도 어렵고 회귀한 반면 일단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최고가 된다. 벼루의 생명인 강도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신씨의 조각솜씨가 보태져 ‘좋은 바탕의 좋은 작품’을 이뤄내는 것이다.

지난 세월, 처음 자석벼루를 재현하던 때의 어려움은 재현 이후의 호응이 보상에 주었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무엇보다 해마다 두차례씩 청와대에 납품을 했다. 교직자들에게 대한 대통령 하사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한때 30여명의 일꾼을 부리기도 했고 한달에 다섯번은 공산에서 원석트럭을 몰았던 신씨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대를 시절타령부터 하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서가 아니다.

“누군가 이 맥을 어여야 할텐데 장담 못하겠어요. 나에게 기술 배워간 젊은이는 백여명이 넘지만 진득하게 이 일로 보람을 찾을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수출도 좋고 국내 시장도 좋았어요. 중국산 벼루들이 워낙 싸게 팔려 드니까요. 좋은 물건보다는 싼것, 외제에 더 마음주는 세상에 우리같은 사람 한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씨는 중국산 벼루에 대해 크게 경쟁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싸다는 이유로 많이 팔리지만 결국 진품이 제대로 대접 받게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집념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 평소 생활하면서 참으로 혼돈스러운 일이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집착과 집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념이 강하다라는 것은 목표에 대한 성취욕이 강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집착도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생각이 집착인지, 집념인지 알수없군요. 또 꼭 이뤄야만 할 중요한 일이라면 집념이든 집착이든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하경림·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답 집착이나 집념이나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비록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일이라도 다 유휴법이라는 마찬가지로 본래 집착을 여의라, 놓아라하는 것은 무위를 일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놓는다는 생각조차도 놓으라고 하지 않던가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먹어야하고 자야 하고...또 돈도 벌어야하고 사랑도 나누고

도리요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도리를 이름입니다. 무위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착을 때려냈는데 그러면 집념은 뭘까? 성취하려는 욕망은 뭘까? 이리신다면 그건 유휴법의 늪이지요. 유휴법으로 아무리 사랑분별을 해보아도 그렇게해서 얻은 답은 다만 알음알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간도리요야 잘나고 못나고 있고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쁜 게 있지만 출세간의 도리에선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발견하려거든 믿고 맡기고 몰락 놓아버려라, 그걸밖에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요? 결과는 왜 따지니까? 부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고 마음을 무량보배의 창고와 같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기로하면 되었지 무엇을 따지려하겠습니까? 따지고 싶거든 따지는 그것, 따지는 그 눈을 관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늘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어 주인공 자리에

지 상 상 탐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성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화엄종인 대흥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하지 않아요. 방학적이어서 그런 것을 해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된다. 하지 말아야지 한다면 그것도 한 집착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욕망을 나무랄 수도 없구요. 넓게 보면 보살의 서원도 욕망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집념이라든가 욕망이라는 게 나를 얽매는 요소가 된다는 집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의 진면목을 발견해 대자유인으로 살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면 우선 종문서·노비문서를 불태워야 합니다.

내가 전자에 입력된 것으로서 움푹달짝 못하고 그 관념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그게 바로 종문서 노비문서인데 그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나를 보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하나? 우선은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불어 죽는 도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관념의 활동을 꼭 깨뜨려버려야 합니다. 마치 감옥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지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한껏 해보아야 좋겠음이지요. 감방 안에서 하는 짓에 불과하게 됩니다.

방학적이하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죽는

몰락 놓고 여여한 대장부 발걸음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놓고가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나를 잊게한 도리가 있다면 그 도리가 바로 주인공자리이니 나를 형성시켜 놓는 그 주처에다 일체를 맡기라는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방학적인 것입니다.

그렇더니 어떤 이들은 다 놓고 어찌 살란 말이나 반문하는데 그러면 티끌 한 점 불을 지리없이 다 놓은 부처님을 어찌 사셨으며, 부처님을 거지 중의 상거자라고 하지 왜 인천의 스승이요 삼계의 도사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휴법-세간의 법에 갇혀 살지만 놓고가는 삶은 유휴법과 무위법이 결합된 자리에서 대자유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용 한 철 사고요량이라면 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종문서 태워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이른 바 만물의 영장이라 하겠지요.

거름 말하지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지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공 내가 알아서 하라고 딱 맡기고 그저 열심히 사세요. 그런 자세로 놓고 또 놓고 그렇게 해나가 보면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구나 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옛 선사들 말씀에 백척간두전일보라...나 무가지 불잡은 손을 탁 놓으라고 하지 않던가요.

놓으면 있습니다. 비우면 있습니다.

1996년도

불전국역 연수과정 및 연구과정생 모집요강

제 2기 연구과정

1. 모집인원: 00명
2. 모집대상: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깊이있게 연구코자 하는 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3. 응시자격: (1) 본 연구원 연수과정 수료자 (2) 일반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전문강원 중장 이상 자격자 (4) 불전 번역에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4.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서류제출 및 전형료: 가. 본원 소장양식 응시원서 1부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다. 전문강원 중장 경력 증명서 라. 이력서 1부 마. 사진 5매(반명함판) 바. 제출 원서대 및 전형료 (원서대: 2,000원, 전형료: 30,000원)
6.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교부 및 접수기간: 96.7.23(화)-8.3(토) ②접수처: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전화: 929-9991)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내)

- 나. 서류심사 및 면접 ①일시: 96.8.18(일) ②장소: 본 연구원 교학부 ③시간: 오후 2시 30분~5시 다. 합격자 발표 96.8월 21일 (개별통고 및 본 연구원 게시판) 라. 등록 ①일시: 8월 22일(목)~8월 24일(토) ②장소: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①일시: 8월 26일(일) 오후 7시 ②장소: 중앙승가대학 대강당
 7. 교육과정: 가. 교육기간: 2년(4학기) 나. 강의시간: 오후 7시~9시 다. 강의과목: 매 학기별 개설강좌 변동됨
- | * 96년도 가을학기 개설강좌 | | | | |
|------------------|--------|---------------|---------------|------|
| 원 | 화 | 수 | 목 | |
| 개설강좌 | 한국불교통사 | 유식사상특강 (유식요석) | 화엄사상특강 (정광소초) | 종법스님 |
| 담당교수 | 윤계스님 | 송찬우교수 | 해남스님 | |
- 라. 가을학기 강의 시작: 9월 2일

제 5기 연수과정

1. 모집인원: 00명
2. 모집대상: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깊이있게 연구코자 하는 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3. 응시자격: (1) 정규대 이상 졸업자 (2) 강연 졸업 이상 자격자 (3) 한역 위주의 연구소 및 단체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 (4) 불전 번역에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6) 중앙승가대학 2년 이상 수료자
4.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서류제출 및 전형료: 가. 본원 소장양식 응시원서 1부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스님은 강연 졸업증명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사진 5매(반명함판) 마. 제출 원서대 및 전형료 (원서대: 2,000원, 전형료: 30,000원)
6.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교부 및 접수기간: 96.7.23(화)-8.3(토) ②접수처: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전화: 929-9991)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내)

- 나. 서류심사 및 면접 ①일시: 96.8.18(일) ②장소: 본 연구원 교학부 ③시간: 오전 9시 30분~12시 다. 합격자 발표 96.8월 21일 (개별통고 및 본 연구원 게시판) 라. 등록 ①일시: 8월 22일(목)~8월 24일(토) ②장소: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①일시: 8월 26일(일) 오후 7시 ②장소: 중앙승가대학 대강당
 7. 교육과정: 가. 교육기간: 2년(4학기) 나. 강의시간: 오후 7시~9시 다. 강의과목: 매 학기별 개설강좌 변동됨
- | * 96년도 가을학기 개설강좌 | | | | |
|------------------|-------|---------------|----------------|------|
| 원 | 화 | 수 | 목 | |
| 개설강좌 | 회관연구 | 종관사상연구 (삼론론의) | 유식사상연구 (상종법요석) | 종법스님 |
| 담당교수 | 권명대교수 | 이태승교수 | 송찬우교수 | |
- 라. 가을학기 강의 시작: 9월 2일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 전화: 929-9991 FAX: 953-2876